

둘째딸의 갑작스런 방문

갑작스런 아내의 사고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동부에 있던 둘째 딸에게 두 주만 다녀갈 수 없겠는가? 묻게 되었다. 둘째는 두 말하지 않고 자신의 중요한 계획과 여행의 위험함을 뒤로하고 이틀 뒤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했다. 실은 내가 도와도 될 수는 있었겠지만 아내에게는 정신적인 위로와 아울러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량을 담당해 줄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둘째가 도착하자 아내는 아픈 것도 잊고 기뻐하고 좋아했다. 그 때 한 가지는 해결 했다고 생각했다. 정신적인 위로다.

딸아이는 며칠을 지나며 실질적인 도움도 흠뻑 주었다. 정말 고마웠다. 그러다 돌아가야 할 2주가 거의 될 즈음 한 주를 더 있겠다고 하니 이제는 입이 열려서 닫히지를 않는다. 너무 고마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3주를 다 채우고 며칠 전 다시 동부로 돌아갔다. 새벽에 떠나는 둘째를 공항에서 열싸안으며 이제는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며 살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고 오히려 나와 내 아내를 지혜롭게 인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이다. 공항을 빠져 나오며 내 마음 한 구석에 기쁨과 아울러 그 딸이 이제는 내 품안에 있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얼마나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하던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어린 아이가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된 후에는 자신의 삶을 찾아 훨훨 멋지게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갑자기 생각났다. 내가 이전에는 어린아이였지만 믿음이 자라나며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 중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을 달려가는 성도의 모습이 조금이나마 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한 편으로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여 늘 회개가 끊이지 않는 나의 모습 속에 죄송한 마음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겨우 듣고 겨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깨닫고 당연히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회개가 터져 나왔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전서 4장 14-15절)라고 하신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순종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며 당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 아이도 청년도 아닌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다. 그 때에 하나님을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으시며 은혜로 흠뻑 젖어들게 하실 것이다.